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나주호 수질환경보전 회 개최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6.11 16:06

지자체·환경단체·주민 합동 상류 유역 환경정화...생활쓰레기 수거
녹조예찰·수질오염신고센터 운영 등 민관 협력 수질관리 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나주호 수질 보전을 위한 민관 합동 활동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지자체·환경단체·지역주민과 함께 나주호 수질 보전을 위한 민관 합동 활동에 나섰다.

11일 나주시사는 나주호 상류 유역에서 '2026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 및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했다. 나주시사 관계자와 나주시청·다도면·나주호 환경연합·지역주민 대표 등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이 참석해 나주시 다도면 신동리 일원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나뉘었다. 공사는 농업용 호소 수질조사·녹조예찰·수질오염신고센터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생활오수·축산분뇨 등 상류 유역 오염원 관리와 불법투기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도 오염원 감시활동과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 함께하기로 했다.

류화열 나주시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지역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이라며 "나주호 수질관리는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환경단체·지역주민과 함께 상류 유역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